

# 격 려 사



최 인 기 (농림수산부장관)

친애하는 전국의 양돈농가 여러분 !

그리고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평소 축산업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김종필 민주자유당 대표최고위원님,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 !

오늘 『전국양돈인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와 같은 뜻깊은 자리에서 격려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신 대한양돈협회 전동용 회장님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양돈농가 여러분 !

지금 우리 농어업은 개방화, 국제화에 따라 전세계 선진농어업과 무한경쟁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경쟁에서 이기면 우리 농어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설자리를 잃고 마는 중요한 전환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농어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생산에만 국한하던 농어업분야를 가공·유통까지를 포함하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식품산업으로 범위를 넓혀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농어업을 살리는 일은 농림수산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힘을 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의지는 지난 6월에 각계의 의견을 토대로 전부처가 참여하여 만든 『농어촌발전대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모든 국민들은 농어업의 발전이 국가발전의 기초가 된다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 농어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농어촌특별세』 15조원을 기꺼이 내기로 동의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농어업의 담당 주체인 우리 농어민들이 농어업을 살리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창외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새로운 각오를 갖는 것입니다.

이같은 농어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정부를 포함한 전국민, 그리고 농수산 관련단체 모두가 힘을 하나로 뭉쳐지면 우리에게 닥친 오늘의 시련은 오히려 내일의 밝은 농어촌을 향한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양돈농가 여러분 !

우리 양돈업이 처해 있는 상황도 전체 농어업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외적으로는 WTO체제 출범을 앞두고 국제화, 개방화라는 무한경쟁시대를 맞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농촌노동력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인력부족, 환경오염의 사회문제화 등 여러가지 면에서 종전보다는 경영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여건이 불리해지는 과정에서도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 양돈농가들이 사육두수를 늘려 규모화하고, 사육시설을 현대화 하는 등 전문·전업화하여 이제는 국내 전체 육류소비량의 56%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품질 좋은 돼지고기를 해외에 수출까지 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가격과 품질면에서 국제경쟁력이 다소 뒤떨어지기는 하지만, 일본이라는 좋은 돼지고기 수출시장이 인접해 있어, 돼지의 사육기술과 생산성 제고에 좀 더 노력한다면 세계시장에서 선진국과 당당히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양돈농가 여러분 !

정부는 양돈전업농을 육성하고 양돈단지를 확대·조성하며, 생산·가공·유통의 계열화를 적극 추진하여 양돈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을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돼지의 집단 사육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분뇨처리시설을 확대하며,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축산물종합처리장을 건설하는 등 축산물 유통구조도 아울러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시책이 결실을 맺어 양돈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한양돈협회 등 생산자 조직을 중심으로 하여 양돈농가들이 단합하고 자조적인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여기 참석하신 양돈농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양돈산업을 이끌어가는 선구자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이같은 단합과 자조적인 노력을 이끌어 내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양돈농가 여러분 !

양돈산업도 이제 단순한 생산에 그치지 말고 도축, 가공,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함께 영위하는 복합산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여기서 생기는 높은 부가가치를 양돈농가에게 돌리기 위해서 양돈농가와 생산자 조직이 양돈산업 발전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양돈업은 부업농가나 아마추어가 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프로정신에 투철한 전문양돈인이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양돈산업을 좀 더 규모화, 전문화, 자동화 하고 경영을 혁신하는데 지도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 양돈인 여러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여러분의 이같은 노력이 우리나라 농어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양돈농가 여러분 !

오늘의 양돈인 대회를 통해 양돈인들이 화합과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우리 양돈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